

다케다신겐의 역사산책투어

야마나시통역자원봉사넷트 한국어대표
안 인숙

여러분 야마나시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다케다신겐의 역사산책을 가이드할 ○○
○입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예쁘게 잘 봐주세요 0 ^ ^ 0

1. 다케다신사(武田神社)



여기는 다케다신사입니다.

注※「神社の階段を上り、拝殿の近くに行つて説明にはいりましょう。」



【하이덴(拜殿)】

여기는 「다케다신사」입니다. 다케다신사는 다케다신겐공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겐공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일본 전국시대 제일가는 명장수이었습니다. 다이에 원년(大永元年 1521 年)에 당 신사의 배후에 위치한 세키스이지(積翠寺)에서 태어나, 덴쇼원년(天正元年) 4 월 12 일 교토에 가는 도중에 신슈 고만바(駒場)에서 53 세로 생애를 마치기까지, 21 세에 국주(国主)가 된 이래 약 30 여년간, 많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領国)의 경영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치수(治水), 농업·상업의 강흥에 힘을 기울여, 영민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에도 현민 누구나가 「신겐상, 신겐상」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현하고, 고장의 영웅으로서 자랑으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다이쇼 4 년(1915 년), 다이쇼천황의 즉위 때 신겐공 묘앞에 종삼위(從三位追贈=울령제도하에서 『귀(貴)』로 불리우고, 별에 해당하는 지위로도 불리웠던, 상급귀족의 계급으로, 종 3 위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를 공작 또는 상달부로 불렀다)가 내려진 것을 계기로, 유덕을 추모하는 현민들에게 다케다신사의 창건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관민일체로 「다케다신사봉건회(武田神社奉建会)」가 설립되어져, 그 기부금에 의해서 다이쇼 8 년(1919 년)에는 신사전당이 준공, 4 월 12 일 명일에 첫 제례가 바쳐졌습니다.

그 후, 가이의 나라(지금의 야마나시현)의 호국신으로 숭배를 받으며, 헤이세 11 년(1999 년)에는 창건 80 주년을 맞아, 기도전(祈祷殿)「료와덴(菱和殿りょうわでん)」의 조영을 시작으로 각종 기념사업이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신사참배하는 방법은, 절을 2 번, 박수 2 번, 소원을 빌고, 마지막으로 절 1 번입니다.

오늘은 기왕에 신사에 오셨으니, 팬찮으시면 저를 따라서 소원을 한 번 빌어보세요. ^ ^

【나라 지정사적 츠즈지가사키 야카타 (躑躅ヶ崎館跡)】

다케다씨의 관으로 나라사적으로 지정된 츠즈지가사키 야카타는 일본 명성(名城)100 중의 하나입니다. 본성과 가신관, 성내(城下町)가 일체화되어, 다케다 3 대(노부토라信虎·신겐信玄·가즈요리勝頼)에 걸쳐 발전하였고, 현재의 고후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배후의 산에는, 요가이야마 성(要害山城)이 있으며, 동서로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로(水堀)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뒷쪽에 살짝 보이는 빨간 다리는 신성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줍니다.

다케다신사는 신겐공의 부친 노부토라 공이 에이쇼(永正)16년(1519년)에 이사와로부터 옮긴 츠즈지가사키 야카타에 조용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케다 3대가 60여년에 걸쳐 거주하였으며, 쇼와 13년(1938년)에는 나라의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내 사적에는 당시로부터의 수로, 돌담, 우물 등이 남아있고, 신겐공을 비롯한 일족의 유향(遺香)이 현대에 전달함과 동시에, 신사창건시, 현내 각지로부터 기증을 받은 수백종류의 수목이 사계절마다의 절경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내에 있는 「삼엽송」은 전국에서도 드물게, 황금색이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몸에 지니면 「금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갑에도 조금 담아가지면 좋겠지요?

〈다케다 대신님의 효험〉

다케다신사는 가이(甲斐)국의 수호신인 것 뿐만 아니라, 역시 「승운」의 효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승부사에 그치지 않고, 「인생 그 자체에 이기고」 「자기 자신에게 이긴다」는 효험을 덕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상업·공업을 진흥시킨 것에서 산업·경제의 신으로서도 숭배받으며, 민정에 뛰어났던 점으로부터는 정치가들의 신으로도 숭배받고 있습니다.

【호우모츠덴(宝物殿)】



다케다신사의 보물의 걸작은 산죠가로부터 기증된 「요시 오카 이치몬지(吉岡一文字)」라는 칼로, 나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칼은 신사 창건이전 메이지 13년(1881년) 메이지천황의 야마나시 행차시에 함께 수행했던 산죠사네토미(三條實美)대신과 신겐공의 정실이 산죠(三條)부인이라는 인연으로, 신사창건을 기념하여 봉납되어진 산죠가문 전래의 명도입니다. 그리고, 다이쇼 8년(1919년) 신사창건 이래 전국의 다케다가문 관계자로부터 동 가문과 관계깊은 유물 등을 기증받아, 쇼와 47년(1972년)에 개관되었습니다.

수장된 물건들은 역사적, 문화적평가도 물론이지만, 이들과 대면하고 있다면, 전국시대에 문자대로 목숨을 건 천하통일의 꿈에, 또한 내정에 심혈을 기울인 무사의 정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참배하실 때에는 꼭 관람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100개의 명성(名城)스탬프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다케다 24명의 장수그림이나 풍림화산(風林火山)의 깃발 등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칠성군부채(七星軍扇) 전국시대



신겐공군부채(信玄公軍扇) 전국시대



칼「요시오카 이치몬지(吉岡一文字)」 중요문화재



다케다 24 장군도 (에도중기)



金小実南蛮胴具足

「다케다가상전(武田家相伝)」

(※中には入らず、入館料の案内をしましょう！)

	어른 (고교생이상)	소인 (초·중학생)
개 인	1 명 300 엔	1 명 150 엔
단체 (30 명이상)	1 명 240 엔	1 명 120 엔

※미취학아는 무료.

※고교·중학교의 견학은 전화로 상담주십시오.

※쿠폰은 JTB, 킁키니혼즈리스트, 도큐관광 것이 이용가능합니다.

※호우모즈텐 입관시간・9시 30분~16시 30분까지 배관할 수 있습니다

【료와덴 (菱和殿)】



료와덴은 다케다 신사에서 참배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헤이세 12년 4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더 쾌적하게 불제(お祓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신차액막이 불제, 액막이, 상업번창, 가내안전, 필승기원 등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버스 등 관광으로 참배할 때에도 전원 불제를 할 수 있으므로, 전화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요시간 은 15분 정도입니다.)

【료와덴의 (菱和殿)의 천정화】



료와덴은 목조의 본격적인 사절공법으로 건축되어져, 천정에는 야마나시현에서 볼 수 있는, 초목금수(草木禽獸)나 버섯을 그린 천정화 120 장이 봉납되어 있습니다. 에도시대 「쿄추하치친카노즈(峡中八珍果)」로 불리워, 가이(야마나시)의 대표적인 8 종류 과실의 총칭인데, 포도, 배, 복숭아, 감, 밤, 사과, 석류, 호두(은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의 8 종류 과실을 말하고, 별칭 「가이 팔진과(甲斐八珍果)」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나가사카에 사는 와타나베다카시 화백의 작품입니다.

【다케다 수금굴 (武田水琴窟)】



이것은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은 병을 땅에 묻고, 물을 조금씩 흘러내보내서, 물이 구멍때문에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면서, 병 안에서 소리를 내어, 마치 가야금 소리와 비슷한 청명한 소리를 지중에 울려 퍼지게 하는 소리문화의 극치물입니다.

에도시대, 분카다이쇼(文化大正)시대의 한 정원사에 의해서 고안되어진 기술인데, 차실(茶室)의 손씻는 물이 있는 돌에 설치되어, 많은 차 문화인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고요부노우덴 (甲陽武能殿)】

「고요(甲陽)」란, 명명자(命名者)인 간제요시 유키(觀世喜之)가 쓴 가이 다케다씨의 군학서 「고요군감(甲陽軍艦)」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고요(甲陽)」의 의미는 가이의 나라가 희망에 넘쳐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노우(武能)란, 다케다씨의 「다케(武)」이며 능



악(能樂=일본의 대표적인 가면음악극)의 「부(舞)」와 같은 음이 되어, 고대부터 무예를 하는 자는 동시에 춤을 즐기고, 그 박자를 자기의 무예에도 반영했다고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 다케다 신사에서 계속되어진 뛰어난 무대에 있어서, 능악을 비롯한 신악(神樂) 또는 연무(演武)라는 예능이 미래지속적으로 공연될 것을 기원하여 명명되어졌습니다.

2. 다케다신겐 고보쇼 (武田信玄公墓所)



덴쇼원년(天正元年 1573年) 4월 12일에, 신슈 이나고우리 고만바(信州伊那駒場)에서 53세로 생애를 마친 다케다신겐공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3년간 비밀로 하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3년 후, 엔잔(塩山)의 에린지(惠林寺)에서 장례를 치루고 매장되었습니다만, 죽음을 감추었던 3년간 묻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은 여기를 신겐공의 무덤으로 경애하고, 아이들의 휴식장소로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야마나시현 지정 천연기념물인 야즈부사우메라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의 꽃에 8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3월말경이 되면, 만개된 매화를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신겐공의 메인 무덤은 에린지(惠林寺)에 있지만, 여기는 「신겐공의 비밀무덤」입니다.

즉, 신겐공이 1573년 4월에 나가노현 고만바(駒場)에서 죽은 뒤, 비밀리에 이 무덤에 묻힌 뒤, 그의 죽음을 3년간 비밀로 하여, 적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정말로 비밀로 하고 싶었던 무덤」이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쿠가와이에야스(徳川家康)의 연합군과 아이치현(愛知県)에서 전투중이었습니다.

◎「다케다의 죽음과 사인」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지요.—다케다는, 죽기 전년인 1년동안 오다와 도쿠가와에 연합군을 물리치고 천황과 장군이 있는 교토에 진군하는 사이쵸(西上)작전 결행을 결심하여, 나가노를 경유하여 시즈오카 그리고 아이치로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이에야스가 있는 시즈오카에서는 미카타가하라의 전투(三方ヶ原)에서 승리하여, 노부나가(信長)가 있는 아이치현에 들어서서 더욱 전투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려던 때에, 오래 앓아 왔던 폐결핵인가 폐암으로 죽은 것이 아닐까하고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겐공의 죽음을 감추려고 했을까요?여러분은 짐작가는 것이 있습니까?」—

「사후 3년간은 죽음을 비밀로 해라」라고 했다는 것은, 다케다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들인 다케다 카즈요리가 후계자가 되어 다케다군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다케다신겐이 죽은 것이 알려지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던 오다노부나가와 도쿠가와이에야스 등의 라이벌이 즉시 야마나시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다케다군은, 역전의 베테랑용사들이 줄줄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베테랑용사들이 어린 카즈요리 편이 되어 주기까지 라고 할까, 신뢰를 얻기까지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밀무덤이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신겐공의 유골은 비밀리에 화장되어, 이 장소 (가신이었던 츠치야고에몽 (土屋右衛門)의 가옥사적지)에 비밀리에 묻혔습니다. 신겐공의 사후 3년이 지난 1576년 4월에 유골 또는 유재(遺灰)를 파내어, 에린지(惠林寺)에 옮겨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으나, 이 무덤의 일은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증거로, 무려 200년이나 지난 1779년이 되어, 이 무덤은 당시의 고후대관에 의해 발굴되어져, 안에서 신겐공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신겐공의 무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정말로 비밀무덤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3. 엔코우인 (円光院)



이 절은, 고후시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춘화추월(春花秋月)의 아름다움과 전망으로 둘러싸인 츠츠시가가사키(躑躅ヶ崎)의 동쪽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즈이간산(瑞巖山) 엔코우인(円光院)」의 왼쪽의 「산조부인(三条)묘소(廟所)」의 석비가 있는 석단을 올라가면, 정면에 쇼와 52년(1977년)에 재건된 본당과, 그 오른쪽에 헤이세 11년(1999년)에 완성된, 절의 거실(부엌)이 있고, 사원내에서 때를 알리는 종각에 해당하는 종루(鐘樓)는 경내에 사쿠라가 만발한 시즌이 되면 볼만한 경관을 보여줍니다.

【포인트는요!】

- ◎이곳은 「선종(대승불교)의 하나. 남인도출신인 달마가 중국에서 가르친 불교. 일본에는 가마쿠라시대에 들어옴)의 하나인 임제종(臨濟宗)의 절」입니다.—임제종(臨濟宗)은 가마쿠라시대에 에이사이(榮西)승려에 의해서 시작되어, 선을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달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파로, 선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무사들의 신봉을 받아왔습니다.
- ◎ 그러면 「선이란 무엇인가 아십니까?」—선은 앉은 자세에서 명상을 하는 수행으로, 망설임이 없는 경지에 달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1에서 10까지 반복해서 세면서, 1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좌선을 합니다. 최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다고 하여 일반인들도 좌선을 많이 하지요.
- ◎다음으로 「엔코우인의 역사를 소개해 드릴까요?」—이 곳은, 선의 수행을 중요시한 신겐공이 야마나시현 내에 있었던 5개의 격식 높은 선종의 절을 고후로 옮겨, 고후 5산의 이름을 붙인 절 중의 하나입니다. 고후 5산 (도우코우지東光寺, 노우조우지能成寺, 초젠지長禪寺, 엔코우인円光院, 호우센지法泉寺)을 중심으로, 선종을 야마나시현에 보급 장려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 절은 원래는 이사와에 있었습니다.
- ◎ 그리고 이곳은 「산조부인의 사교장」이기도 했습니다. — 산조부인은 다케다신겐공의 정실로, 교토의 귀족, 산조킹요리(三条公頼)의 차녀로 수루가(駿河)·도오토우미(遠江)·미카와(三河)를 지배하는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의 중매로 덴분 5년(天文5年 1536년)에 16세로 신겐과 결혼하여, 사이에 5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 절에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신겐공도 몇 번이고 이 절에 왔으며, 다른 요인들도 빈번하게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절은, 일종의 사교장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산조부인은 다케다신겐보다 3년 빠른, 1570년에 50세로 죽었으며, 무덤이 이 절에 있는 것입니다. 부인의 범명으로부터 엔코우인이라는 칭호를 붙였다고 합니다.